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최대 67%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적용 예정

일반오염물질 10종·특정유해물질 13종 배출기준 30~33%↑

2024년까지 석탄발전소 6곳 저탄장 옥내화…최장 1년유예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최대 67% 강화되고 관리 대상 물질과 사업장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설비 용량 1.5MW 이상 섬 지역의 발전시설(18기)과 시간당 123㎿(800㎿h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 능력 시간당 25kg 이상의 동물화장 시설(24곳)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운영자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섬 지역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와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허가를 끝내야 한다. 동물화장시설의 허가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또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중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허용 기준을 현행 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이황화탄소 67%, 암모니아 39%, 탄화수소 38%, 먼지 33%, 황산화물 32%, 질소산화물 28%, 황화수소 26%, 구리 및 그 화합물 20%, 아연 및 그 화합물 20%, 일산화탄소 3% 등이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 허용 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수은 및 그 화합물 42%, 비소 및 그 화합물 38%, 크롬 및 그 화합물 20%, 아연화탄소 20% 등이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 허용 기준은 신설된다. 해당 물질은 벤조(a)피렌'(0.05mg/S㎥),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시암화탄소(3ppm)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의 기준 설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2024년까지 영통·보령·삼천포·당진·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

단,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삽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과 총 4605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스



제주 바다서 즐기는 카이트 서핑 균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제주시 힘찬해수욕장에서 한 서퍼가 카이트 서핑을 즐기고 있다.

쌀쌀했다 더위진 4월…강수량은 평년 수준

한달 전국 평균기온 12도…기온차 커

전국 강수량은 79.3mm로 평년과 비슷

4월은 중반까지 쌀쌀하다가 후반에 일시적인 고온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1일 발표한 4월 기상특성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전국 평균 기온은 12도로 평년(12.2도)과 비슷한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고 내렸다.

4월 초중반 저온을 나타낸 원인으로는 15일까지 러시아 동부와 베링해 부근에 상층 기압골이 자리 잡은 가운데, 침차가 반도 부근에 강한 상층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기압계의 동서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에 분석됐다. 이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차지 내려온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1일 최저기온은 평균 -5도(1일), 김해 1.7도(3일), 해남 -5.3도(4일)까지 떨어졌다.

중반 이후 기온이 높아진 것은 16~24일에는 침차가 반도 부근의 상층 기압골이 약회되고 우리나라는 중국북부에 중심을 둔 상층 기압능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하층에서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22~23일에는 낮 동안에 강한 일사와 동풍에 의한 펜(산에서 불어내리는 내리바람)의 일종으로 건조하고 기온이 높음) 효과가 더해지면서 서쪽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4월 일 최고기온으로는 서산 28.5도(22일), 청주 29.8도(22일)를 기록했다.

상순과 하순 주기적인 기압골의 영향으로 4월 전국 강수량은 79.3mm로 평년(56.1mm~89.8mm)과 비슷했다.

6일과 14일, 20~21일, 25~26일은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7일과 16~17일 28~29일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도 중심으로 비소식이 있었다. 9~10일과 23~24일은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렸다.

특히 9~10일 기온이 낮았던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높은 산지에서는 동풍과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강수 구름대가 발달해 많은 눈이 쌓이기도 했다.

뉴스스



우리 미혁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되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라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 in
건강한 정복,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증 자폐증기발전
재활치료 충원 민혁군

미노스 캐롤라이나대 총격사건 6명 사상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실렛에 소재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캠퍼스에서 4월 30일(현지시간) 총격사건이 발생,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고 대학당국이 밝혔다. 이 소식은 현지 WSOC 방송이 보도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태이고 2명은 생생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대학 당국은 경보를 발하고 "캐네디관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도망치고 숨고 싸워라(Run, Hide, Fight)." 우선은 몸의 안전부터 생각하라"는 경고방송을 계속했다.

메클렌버그 비상의료센터는 트위터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된 사상자는 2명이었고 중상 2명 경상 2명이 발생했지만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TV 방송은 경찰 진압대가 대학내의 한 건물로 달려가는 모습, 학생들이 교내 보도를 따라서 뛰어 도망치는 모습들을 공중 활영으로 보여주었다.

이어 대학 당국은 경찰진압대가 대학내의 모든 건물들을 훑으며 대항에 나섰다고 알렸다.

이날 이 대학에서는 축구경기장에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비고 있었다. 이 대학에는 2만6500명의 학생과 3000여명의 교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미시시피강 범람 아이오와주 주민 대피령

미시시피강이 불 폭우로 범람, 미네소타주에서 위스콘신주 남부와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로 흐르는 이 강에 흙수가 나서 4월 30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의 데이븐포트 일대가 물에 잠겼다고 AP통신과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를 기해서 흙수경보를 발령하고, 데이븐포트 시내의 주민들에게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지역의 KWQC TV방송은 임시 블랙아웃이 무너져 시내가 침수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지붕 위나 옥상으로 피신해있다는 현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곳 중심가는 이미 흙수로 물에 잠겨 수십대의 차량들이 침수 되었다. 물은 여러 빌딩의 1층까지 들어섰다. 갑자기 일어난 흙수로 흘러져 달아난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보트를 몰고 시가지를 누비는 광경이 보도되고 있다. 아직 사상자 수는 당장 보고된 것이 없다.

미시시피강의 갑작스러운 흙수로 연안의 10개 주 주민들은 이 번 주 안으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에 따라 피해가 좌우되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기상청은 강과 직접 면해있는 10개주에도 흙수 주의보를 내렸다. 큰 도시들이 주로 강둑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오와주에서는 데이븐 포트와 머스크린 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저지대의 시가지 일부를 폐쇄하고 모래주머니로 흙수방지 둑을 쌓았지만 도심의 침수를 막지 못했다.

기상청은 미시시피 강의 범람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확대해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주리, 캔스اس주 일부, 오克拉호마, 아칸소주까지 흙수주의 보를 내렸다.

베네수엘라 군사봉기 시도로 52명 부상

4월 30일(현지시간) 아avn 지도자 후안 파이도 국회의장이 주도한 베네수엘라 군사봉기 시도로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산하 군부는 군사봉기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CNN에 따르면 이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군사봉기 시도로 52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이들 중 32명은 고부탄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실탄으로 총상을 입었다. 16명이 충격에 의한 부상을 입었고, 3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이번 군사봉기 시도가 대부분 진압됐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현장에서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이 생중계한 영상에는 시위대와 군부가 일정 거리를 두고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현지에서의 CNN 수신은 차단됐다.

이날 군사봉기 시도에는 파이도 의장의 정치적 멘토이자 한때 당국에 억류됐던 아avn 활동가 레오플도 로페즈도 참여했다. AP에 따르면 로페즈와 그 가족들은 카라카스 소재 칠레 외교공관으로 피신했다.

주변국들도 베네수엘라 사태 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북쪽으로 국경을 맞댄 브리진에선 자이르 보루소나루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 논의를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할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에게 조언과 상담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23 | 고객센터 1577-1000

건강 in
건강한 정복, 건강한 생활

우리 미혁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되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라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